성공을 버린 노예의 해석학

(창45:1~20)

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공을 버린 노예의 해석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성공을 버린 노예의 해석학'
일본 작가인 하코다 타다아키가 쓴 "떨어진 사과를 팔아라."라는 책이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분이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난데없이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미네소타 지역 전체에 사과농사를 망치는 일이 벌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에, 사과농장을 하는 조지라는 청년이 전혀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다른 방향으로 이 사태를 받아들이는데, 하늘이 내린 기회로 생각해서 휘갈겨 쓴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자연의 혜택을 그대로 머금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몇 십 년 만에 한 번 내린다는 우박을 맞은 천연제품입니다. 그 덕분에 맛 또한 꿀맛입니다. 사과 표면에 있는 검은 반점은 우박을 맞았다는 증거입니다"라는 광고를 해서 눈 깜짝 할 사이에 사과가 모조리 팔려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의 저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대 전제를 제시하면서 성공을 위해 여섯 가지 법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정의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의대로 성공을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루었을 때를 성공이라고 한다.”
보탤 수가 없이 너무 완벽합니다. 이게 성공이지 뭡니까?
내 가치관을 기준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다른 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여섯 가지 법칙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사고를 바꾸는 것이 인생을 역전하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떨어진 사과를 팔아라.’라는 제목과 연관 되어 미네소타의 사과농장 주인인 조지의 이야기에서 나온 발상인데, 첫 번째 성공법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한 것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는 것에서부터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데, 무엇이 긍정적인 생각이고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돈에 대해서 라면, 돈을 잘 버는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것, 돈을 잘 버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긍정이라는 말 자체에도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성공의 그림을 그리면 성공하기 전까지의 모든 현재는 다 성공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도 해석이죠.
오늘 제목을 ‘노예의 해석학’이라고 했는데 성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은 자기의 삶의 형편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를 해석하는데, 현재를 자꾸 잘못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현재를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면, 그 현재에 이어서 오는 미래는 언제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사고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근원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해석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할 것이냐?
해석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캐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을 때에는 현재를 대부분 불만스럽게 받아들여서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성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지금은 언제나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 주어진 상태로 생각하게 됩니다.
조지라고 하는 청년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적인 사과농사에 대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버립니다.
성공적인 사과농사의 기준은 '흠집이 없고 윤기가 있어서 팔 때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다'라는 기준이 있으므로 우박 맞은 사과들이 그 기준에 미달되게 되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조지라는 청년이 긍정적인 성격을 체질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조지라는 청년에게 계시처럼 떠오른 것이고,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성공적인 사과농사라는 기준이 망각된 것이고, 우박 맞은 사과 자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우박 맞은 사과가 내게 주어졌는데, 성공적인 사과의 기준이 사라지고 나면 이 사과가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큰 우박이 자주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라 오랜만에 떨어진 우박과 사과의 만남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절한 사람들도 해석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때에 작용한 해석의 틀이 무엇이냐면 성공적인 사과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거나 부정적으로 살라고 말할 것이 아닌 것은 더 근원적으로 해석의 문제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곳간 안에 곡식을 잔뜩 보관해두고 몇 해 동안 함포고복(含哺鼓腹)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할 때, 눅12: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돈 많이 벌어서 은행에 넣어두고 배 두드리면서 이제는 좀 안심하며 살겠다고 하는 상태가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보시고, 그 상태를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는 큰일 날 상태라고 보십니다.
그러므로 긍정이나 부정이라는 말의 기준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를 바에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긍정과 부정이라는 말로 인생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그 다음에 이어져오는 미래가 또한 바른 미래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하려고 뛰어갈 것이 아니고, 지금 주어지지 않은 미래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주어진 지금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성공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무조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합니까? 노예 해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예를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삶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노예가 되어서 삶을 바라볼 때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해 낼 수가 있고, 지금 주어진 해석이 가장 올바르게 해석이 되면 미래도 올바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이 어떻게 노예의 해석학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하는 자기 헌신적인 충정어린 탄원을 했습니다. 동생과 아버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진심어린 탄원에 요셉이 그만 울음을 터트리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형들을 만날 때에 요셉이 제일 먼저 형들에 대한 배려로 입에서 꺼낸 말이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형들이 팔아서 보디발의 노예로 전락했었습니다. 그 현재를 해석하는데 이 해석을 긍정적인 사고로 본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분명히 형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보냈지만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억지가 바로 노예의 해석학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노예의 해석학을 삶에 적용하십니다.
분명히 빌라도가 생사여탈권을 쥐고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19: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라고 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을 쥔 것은 로마 황제가 준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그런데 노예의 해석학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빌라도가 상관이 없다고까지 하시는데 왜 빌라도가 상관이 없습니까? 사도신경에도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거부하시고, 예수님의 인생에서 빌라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억지 말을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노예의 해석학이라는 것입니다.
동업자가 내 돈을 사기 쳐서 내가 망했다면, 예수님과 요셉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가 내 돈을 갖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돈을 없애버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노예의 해석학입니다.
그가 왜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노예는 주인 말고는 아무와도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노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주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주인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악함이 자기의 인생길을 결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예는 주인만이 명령이 내릴 수 있고, 주인의 명령만을 따르게 됩니다.
노예 생애의 모든 말과 행동과 길은 주인이 결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실 때에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굽어지는 것 같아도, 악한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형들은 나를 인신매매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노예인 상태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 때에 노예로 살게 되는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의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현재의 상황이 내게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에서는 형들이 절을 했고 미래에는 내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현재의 상황은 불만의 상황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봐야 될 것은 내 미래의 성공이 아니라,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그 분이 주인이시고, 그 분이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셨으므로 지금의 상황은 불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준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노예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노예가 아닙니다.
불만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을 갖고 있고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노예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성공을 향해 간다는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가치관을 갖게 됨으로써 노예자리에서 이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노예로의 초청이고, 가장 복된 사람의 모습이자 창조주의 뜻에 맞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주체성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예가 될 때라야만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는 삶의 형편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내게 악감정을 품든 호감을 품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마16:21-23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바로 노예의 해석학입니다. 철저한 노예의식에서 나오는 관점이고 해석입니다.

노예가 되지 않으면 어떤 우(愚)를 범합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을 해석합니다.
서두에서 '떨어진 사과를 팔아라.'라는 책에서 저자가 성공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효과로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 가치관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불만이 왜 생겼습니까?
내 가치관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생기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불행합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책의 저자의 문제는 '성공이란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가치관을 가진 것 자체가 실패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고 하는 것이 다 가치관 아닙니까?

이런 가치관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아담의 실패이고 유전된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생의 주체성이 살아있는 사람인 한, 현재는 올바르게 해석될 수가 없고 현재가 올바르게 해석 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뜻 안에서 미래가 올바르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어서 지금의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예로서 애굽의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사실은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보디발의 주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감옥의 모든 일을 관장하며 감옥의 주가 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주인이 주신 것이라고 해석해 나갈 때에, 성공이 아닌 삶이라고 불만스럽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미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미래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원하셨던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무도 보지 않았고 다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노예의 해석학으로 매 순간마다 삶을 해석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노예의 해석학이 적용 됩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까?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성공이 보여서는 해석이 나오지 않고 해석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성공이 보인다든지, 나를 해치는 원수가 보인다든지, 호감을 주는 사람이 고마워서 그 사람이 마음에 보인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서 나에게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구분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해가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도 해를 끼친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졌고, 요셉이 형들을 구원하고 근동지방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도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노예의 해석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노예의 해석학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노예가 될 때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될까요? 주체성이 뿌리째 뽑혀 나갈 때입니다.

이 주체성은 지금 뽑는 것이지 내일이 되면 또 살아납니다. 날마다 고개를 들고 삐져나오는 나의 주체성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인간의 존재 속에 아예 유전적으로 심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가치관에 따라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갖고, 못 하고,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 주체적인 주체성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어떻게 주체성을 뿌리 뽑고, 노예가 되고, 노예의 해석학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오류 없이 차곡차곡 준비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보이거나, 내게 은혜를 준 사람이 보이거나, 내 성공이 마음에 보이거나, 소위 말하는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거짓된 말에 따라서 내 마음 속에 이루고 싶은 비전을 날마다 보고 있다면, 내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예의 해석학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미래는 혼돈 속으로 말려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항상 마음에 뚜렷하게 보여야 하고 그래야 주체성이 멸절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은 자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주님의 동선을 따라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아버지와 함께 계시듯이 주님을 따라간 우리의 마음이 아들의 자리에 있고, 이 땅에서 육체로 사실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삶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따르지 않고 노예 해석학으로 삶을 해석하라는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공하려 하지 말고 지금을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바른 해석을 위해서 노예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위치에 설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도 주인이 되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주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지금이 해석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노예의 자리에 서야만 지금 삶의 상황이 왜 주어졌는지 알려지는데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로 문제에 대한 주체성을 죽여 버리고 그 문제와 연관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노예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에서 평강을 누

리게 될 것이고,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노예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일 때에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은, 해당되는 문제 때문에 생겼던 걱정이 싹 사라지고,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것으로 마음에 해석이 될 것입니다.
요셉으로 말하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생각입니까?
이 생각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면서 하는 일이 다 잘 된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생각, 억울한 생각으로 눌려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모함 받았다는 억울함에 짓눌려 있었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내 가치기준을 따라서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을 내 마음에서 멸절시키면 됩니다. 갖고 싶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되고 싶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왜 지금을 주셨는지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산 요셉이 애굽의 주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근본적으로 삶을 해석함으로 사는 우리들이 해석의 근원적 차원을 망각한 채 긍정적 부정적 사고를 운운하며 사느라 우리의 지금이 망쳐지고 우리의 미래가 망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노예 됨으로써 주님이 하셨고, 요셉이 했듯이 노예의 해석학을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